



미 증시, 연말 소비시즌 호조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7 일(월)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신규 확진자 급증, 12 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지표 부진에도, 연말 소비시즌 호조 소식에 따른 연말 랠리 기대감이 재차 확대됨에 따라 상승 마감(다우 +1.0%, S&P500 +1.4%, 나스닥 +1.4%). 업종별로는 에너지(+2.2%), 기술(+2.2%), 부동산(+2.0%), 소재(+1.5%), 산업재(+1.1%) 등 전업종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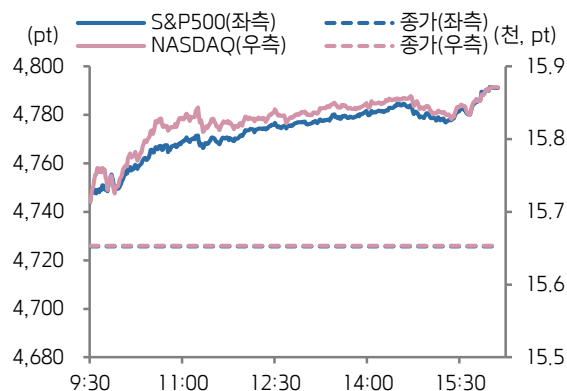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로 변이에 따른 신규 확진자 급증세가 향후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처럼 미국 역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 또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들이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다고 평가.

12 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8.1 로 전월(11.8) 및 예상치(15.0)를 큰 폭 하회. 신규주문(19.6→18.1), 생산(27.4→26.7) 등은 부진한 반면, 고용(28.5→30.9), 설비가동률(26.4→27.8) 등은 개선되면서 세부항목간 혼재된 모습을 보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가격지불지수(82.1→66.2)는 전월에 비해 하락.

마스터카드에 의하면, 11 월 1 일~12 월 24 일까지 미국 유통업계의 소매판매(자동차 제외)가 전년동기간 대비 8.5%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 오프라인 판매와 전자상거래 판매가 각각 8.1%, 11.0% 증가. 2019 년 대비로는 10.7% 늘어나는 등 오미크론 확산, 여행 제한에도 올해 미국의 연말 소비시즌은 견조했던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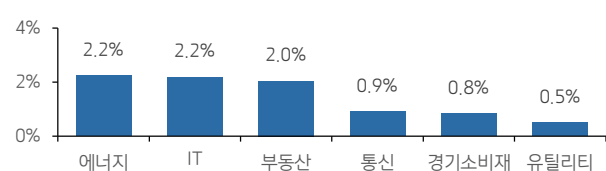
중국의 11 월 산업이익은 9.0%(YoY)로 전월(24.6%)에 비해 큰 폭 둔화되며, '21 년 5 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 원자재 가격 급등, 헝가리 그룹 디폴트 관련 부동산 시장 불안, 소비 둔화 등이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가했던 것으로 분석.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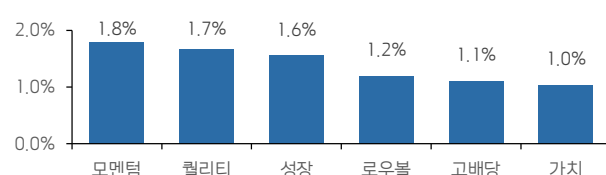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791.19	+1.38%	USD/KRW	1,186.90	+0.04%
NASDAQ	15,871.26	+1.39%	달러 지수	96.08	+0.06%
다우	36,302.38	+0.98%	EUR/USD	1.13	+0%
VIX	17.68	-1.56%	USD/CNH	6.38	+0%
러셀 2000	2,261.46	+0.89%	USD/JPY	114.87	+0%
필라. 반도체	4,039.51	+2.72%	채권시장		
다우 운송	16,388.69	+1.25%	국고채 3년	1.777	-1.8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2.205	+0.3bp
Eurostoxx50	4,287.98	+0.77%	미국 국채 2년	0.699	+1.1bp
MSCI 전세계 지수	748.88	+0.03%	미국 국채 10년	1.476	-1.7bp
MSCI DM 지수	3,206.85	+0.0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20.55	+0.08%	WTI	76.04	+3.05%
MSCI 한국 ETF	79.08	+0.39%	금	1812.4	+0.0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39%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87.2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연말소비시즌 호조로 인한 수출 업종들의 긍정적인 주가 변화 2.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마지막 날에 따른 개인들의 일시적인 매도 물량 급증 가능성 3. 미국 테슬라(+2.5%), 리비안(+10.6%) 등 전기차주 주가 상승이 국내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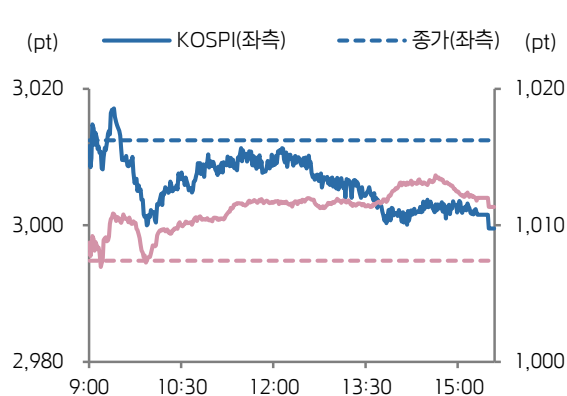
한동안 오미크론, 연준 정책, 인플레이션 등 12 월 중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상기 재료들에 가려져 있었던 연말 소비시즌은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이면서, 재차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 현재 미국 내 일간 신규확진자수는 2 주전대비 약 80% 넘게 급증한 21 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26 일 기준), 파우치 소장이 경고했던 것처럼 일간 50 만명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

그러나 4 분기 이후 월간 소비와 고용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로나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확산세가 이어지더라도 실물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더 나아가, 중증 정도가 기존 변이에 비해 낮은 가운데, 중국 시안, 유럽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 지역을 제외하고, 미국 등 주요국들이 전면 봉쇄조치를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금일 한국 증시는 미국의 연말 소비시즌 호조 소식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미국 소비규모는 전세계 GDP에서 약 17%(‘21 년 3 분기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수출 역시 미국 소비 경기에 민감한 구조. 이를 감안 시 1 월 1 일 발표 예정인 12 월 수출을 포함한 향후 한국의 수출은 일각에서 우려했던 것에 비해 견조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전망은 금일 국내 증시에 일정부분 반영되며 긍정적인 주가흐름을 연출 시켜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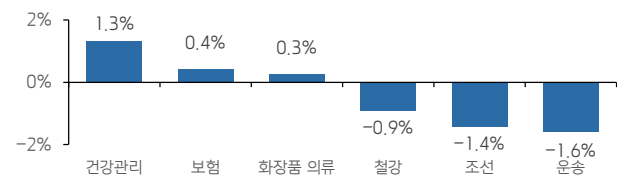
한편, 금일은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이벤트 마지막 날인 만큼, 장 중반 이후 중형주, 소형주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 존재.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주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나, 특정 종목들에 대해서는 펀더멘털, 이익 변화와 무관한 수급상 주가 급락으로 인식하는 매수주체도 등장할 수 있음. 또한 미국발 호재에 힘입어 외국인들의 수급 여건도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의 매도물량이 전체 증시에 미치는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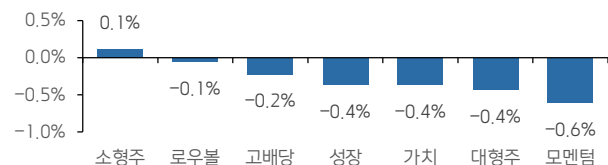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